

# 봄이 와도 땅 속에 씨가 없으면 새 싹은 나지 않는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새해가 시작되지 한 달이 지났다. 새해라는 것이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달라지거나 특별한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들이 잘라서 12월 31일 12시 이전을 지난 해로, 그 이후를 새해로 정하는 것이다.

1월이라는 영어의 January는 그 어원이 야누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2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의 두 얼굴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새해의 시작이 필요하다. 과거와 미래의 두 얼굴이 필요한 것이다.

결코 대국민 홍보용 따로, 협상용 따로의 두 얼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우리는 UR협상에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차선의 노력은 되는가 하는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

BOP 졸업 때 이미 '97년부터 현행 관세로 모두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 UR타결로 매우 유리하게 되었고, 협상단이 최선을 다한 결과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은 것이란 주장과 이번 UR협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불평등 협상이므로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 캐나다, EU나라들이 우리처럼 농축산물을 철저히 개방할 것인가는 몇 달 지나면 분명해질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반성의 필요가 없고, 따라서 UR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후자의 경우와는 크게 시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반성없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계획의 수립에는 축산업을 살리겠다는 방법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생명이 없는 계획은 의미가 없다. 땅 속에 씨가 없으면 봄이 와도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죽은 씨앗을 심든가 아니면 씨가 없이 비료만 준다면 봄이라는 기회가 와도 살아 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서 국가발전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경제전쟁시대 무한경쟁이라는 구호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이제 존재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뇌되고 있다.

우리가 어려서 읽은 동화중에 만지는 것마다 금(金)이 되는 것이 소원인 임금이 있었다. 그의 뜻대로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다. 의자

66

이번 낙동강 오염에서 당국이  
오염의 원인이 벤젠이라고 해서 장관이  
국회에서 벤젠 탄 수돗물을 마시면서도  
잡아넣기는 축산농가를 구속하는 식의 대책이  
낙동강 오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UR농업대책도 양축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99

도, 책상도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했다. 임금님은 흡족했다. 정신없이 만지는 대로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갔다. 한참 지난 후에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밥을 먹고 계속하리라고 생각했다. 수저를 만지니 금으로 변했다. 빵을 먹으려고 집으니 빵이 금으로 변해 결국 그 임금님은 굶어 죽게 된다. 국민학교때 읽은 동화이다. 그 때는 그저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동화의 작가는 어린이에게 무슨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동화를 썼을까?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조사해 보니 4대강이 모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황금을 만드는 데 정신이 없는 동안, 먹을 물, 마실 공기가 없어져 갔다. 농약에 오염된 밀가루, 과일을 먹어야 하는 황금을 싸놓고 굶어 죽은 임금님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돈벌기 위해 낙동강 상류에 공장만드는 데 정신없던 임금님, 먹거리 생산은 황금만드는 데 정신없어 뒷전으로 버려두었던 임금님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우리 문화와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하는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없는 국가경쟁력 제고,

무한경쟁 등 황금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으며, 이러한 소원을 가진 임금님이 된다면 동화속의 임금님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불란서의 교육이 문화와 먹거리를 중요시하고, 다른 EU국가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UR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다.

이번 낙동강 오염에서 당국이 오염의 원인이 벤젠이라고 해서 장관이 국회에서 벤젠 탄 수돗물을 마시면서도 잡아넣기는 축산농가를 구속하는 식의 대책이 낙동강 오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UR농업대책도 양축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등이 가렵다는 사람에게 배를 긁어준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1월(January)이 가기 전에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 일을 계획하여야 한다.

2월이 시작되면서 1일부터 전국 농민들의 UR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농민과 정부의 무한대결 상태만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